

검찰이 못뚫은 청와대 방어막 특검은 돌파할까

특검, 내달초 대통령 대면조사 전 靑 압수수색

기밀장소 분리 등 다양한 법리 고안
대통령 측 “요청 오면 조사 임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조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언제 시도할지 주목된다.

우선 시점은 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앞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 앞 뒤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관련자의 국정 개입 의혹,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혐의 등을 규명하려면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 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다.

17일 현재 특검은 군사 비밀을 보관한 장소로 여겨지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법리를 고안하는 등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을 계속 검토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먼저 수사한 검찰이 작년 10월 하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경호실 측이 국가 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해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데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기밀을 보관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로 세분해 이런 방어막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관련 자료가 파기되거나 핵심 증거가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관한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특검팀 내부에서는 청와대 측이 관련 정보 제공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내달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측 관계자는 17일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특검의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말한 박 대통령을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강제모금 출연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놓고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면서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하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등대와 추모 조형물인 ‘기억의 의자’를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반기문 팽목항 방명록 “고통 같이 나누겠습니다”

‘쇼 멈춰라’ 플래카드 항의시위도
오늘 5·18묘지 참배·조대 특강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세월호 참사’의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영·호남과 충청권을 방문중인 반 전 총장은 지방 순회 이틀째인 이날 오후 4시께 팽목항에 도착했다. 그는 분향에 앞서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분향을 마친 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 9명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조기 인양과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달라는 미수

습자 가족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최근 정치인들과 자주 만나는데, (관련 얘기를) 정치인들에게 하겠다. 미수습된 세월호 가족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약속했다.

반 전 총장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대화를 마친 뒤 세월호 등대가 설치된 팽목항 방파제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진도운동본부’는 ‘쇼를 멈춰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보인 뒤 “여기를 자격이 있느냐, 생색내기 쇼는 그만하라”는 등 강력 항의했다.

이에 맞서 ‘광주 반사모’와 ‘반사모 호남본부’는 ‘위기의 대한민국 희망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반기문’, ‘통합과 화합으로 패권정치 청산은 반기문 이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반 전 총장의 팽목항 방문을 반겼다.

반 전 총장은 팽목항 방파제에 설치된 30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기억의 의자’와 ‘세월호 등대’ 등을 둘러본 뒤 다음 예정지인 해남 명량대첩탑으로 이동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관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팽목항에 이어 해남 명량대첩탑 및 해전사 기념 전시관을 방문한 뒤 영암읍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다.

반 전 총장은 18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조선대에서 특강한 이후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한다. 이어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대구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kr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오른쪽)와 조카 장시호 씨(왼쪽)가 17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도 안마주친 최순실·장시호…혐의도 엇갈린 주장

영재센터 지원 강요 부인·인정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나란히 법정에 첫 선날부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엇갈린 주장을 했다.

한때 경제적 이익을 나누며 기업들을 압박하던 사이였지만 처벌이 달린 형사재판에서는 둘 사이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진실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장씨와 최씨, 김 총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

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소프트웨어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서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을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연합뉴스

헌재, 안종범·정호성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안 前수석 업무수첩 일부도…최순실 신문 조서는 배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출·신청된 2300여개의 방대한 서류증거를 수백개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 기일을 열어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2300여개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했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최씨의 조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진술한 임의성(任意性)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씨 측이 주장한 탓에 배제됐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따라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본인이 검찰 조사나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됐다.

원칙적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만 증거로 채택한다’는 전문증거 배제원칙을 적용했지만,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쓴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기대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증거를 상당 부분 추려내면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이나 기일 연기 등은 심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태영21병원 개원 5주년



박문경 초청음악회

| 전, 광주시향 첼로수석 |

바히르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2017년 1월 19일(목) 7:00(PM)

태영21병원 세미나실

태영21병원

- ▶인공신장실(야간투석)
- ▶중합검진센터(전신 MDCT 보유)
- ▶당뇨병·갑상선 연구소(국가공인)
- ▶유방클리닉(외과 전문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입원실(46 bed)
- ▶아침 7:30분 부터 검진시작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신세계 백화점

유스퀘어 터미널

운암동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 의사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